

# 광주 자원봉사자 40만명 돌파

4명 중 1명 꼐 전국 최고… 3년새 3배 이상 증가

하계U대회·세계수영선수권 성공개최 동력 기대

광주시의 자원봉사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 시민 40만명이 자원봉사자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2015년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광주시민 중 정부의 1365 국가인증시스템(나눔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0만명으로, 전체 시민 149만여명의 27%에 이른다.

지난 2010년 6월 12만6261명에서 2011년 12월 19만4540명, 2012년 12월 32만 5929명 등으로 3년여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인 18%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광주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부산의 자원봉사자는 20%에 불과하다.

자원봉사자의 실제 봉사활동 참여비율도 단연 광주가 1위다. 광주시는 9만 2645명이 참여해 6.3%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4.4%에 불과

하다.

이처럼 광주시의 자원봉사자 등록·참가 비율이 높은 것은 민선 5기 들어 JCIO 아태대회와 UNESCO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 2013년 세계한상대회 등 굵직굵직한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단순한 '숫자 채우기식' 자원봉사자 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 대회 성공의 열쇠인 게임 메이커(Game Maker)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게임 메이커는 대회 조직위와 선수, 관람객 외의 자원봉사자를 일컫는 말로, 지난해 열린 런던올림픽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자원봉사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역 내 23개 대학과 30여개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본·직무·심화·사이버·현장 교육 등 5단계 프로그램을 갖춘 자원봉사학교를 운영중이며, 특히 외국어 자원봉사

자 육성 프로그램인 외국어 스쿨을 개설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어 스쿨에서는 18세 청소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열공중이다.

자원봉사학교 등에서 수준높은 봉사자가 다수 배출되다 보니 각종 국제대회의 참여 경쟁도 치열하다.

당장 오는 2015년 열리는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자원봉사학교에서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U대회 조직위에서 201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U대회 홈페이지([www.gwangju2015.kr](http://www.gwangju201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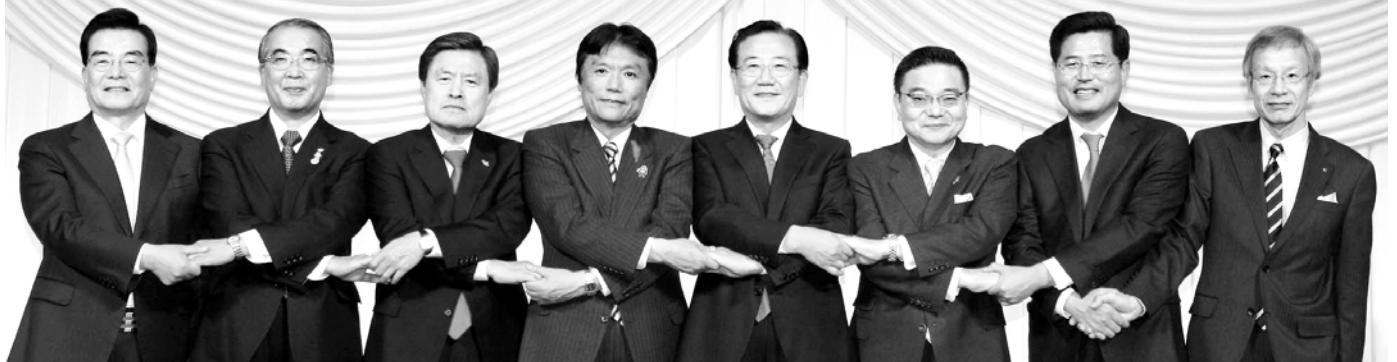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남녀노소 없이 단체 현행에 참여하는 등 타인을 돋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민주·인권·평화의 피가 흐르는 선진시민"이라며 "현재도 광주는 협력 등 자원봉사 1등의 도시이며, 자원봉사자 등록률도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자원봉사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역 내 23개 대학과 30여개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본·직무·심화·사이버·현장 교육 등 5단계 프로그램을 갖춘 자원봉사학교를 운영중이며, 특히 외국어 자원봉사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제22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

2013年11月18日 福岡県



18일 오후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2회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교류 지사회'에서 양측 지사들이 회담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근민 제주지사, 나카무라 호도 니카시카(長崎)지사, 하남식 부산시장, 오기와 히로시 후쿠오카(福岡)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후루가와 야스시 사가(佐賀)지사, 조진래 경남부지사, 후지베 히데노리 야마구치(山口)부지사. <전남도 제공>

## 박준영 지사, 日서 '완도해조류박람회' 홍보

### '한일해협연안 교류지사회' 참석

박준영 전남지사가 1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22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에 참석, 전남의 인재 양성 시책을 소개하고 내년도 완도해조류박람회를 홍보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는 1991년 양국 자치단체 간 교류 촉진회의 개최에 합의한 이후 1992년부터 전남, 부산, 경남, 제주,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치 등 8개 지역이 참가해 윤번제로 개최하는 공동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공동 주제로 참가한 모든 지사와 시장이 발표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또 지역 간 시책 공유와 정보 교환, 내년 후

쿠오카 청소년포럼 개최 등 공동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 전남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513억원의 장학기금 조성,

2007년부터 추진중인 영어캠프 등 전남의 다양한 시책을 발표했다.

또 대학별 특화분야 학생 교류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자는 공동교류사업을 제안했고, 내년도 완도에서 열리는 해조류박람회에도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1998년과 2006년 2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내년 하반기에 제23차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시, 턴키입찰 지양·부실시공 삼진아웃제 도입

### 입찰행정 개선안 확정… 지역·영세업체 참여 확대

광주시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부실 시공 업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행정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역업체 참여 비율과 영세 지역업체의 수의계약을 확대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 행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는 주관적 평가 요소가 있는 턴키입찰 방식을 지양하고, 고난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턴키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도입기로 했다.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이란 평가위원들이 매긴 설계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가 합산돼 최종 낙찰자가 결정됐던 턴키입찰 방식과 달리 일정 설계점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점수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공사 설계심의와 관련된 사안은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등이 주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비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여성기업 보호를 위해 추정가격 1000만 원~2000만 원 사이를 '여성기업 보호준'으로 설정해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3억5000만 원 미만 물품을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에는 광주·전남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지역제한을 비롯한 지역의 무공동도급 발주,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 확대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주영순 의원 "玄부총리, 1500억 국회 예산심사 반영 확답"

지난 2007년 4월 이후 중단됐던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구간 공사가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주영순(비례) 의원은 18일 "현 오석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목포~보성 구간 재착공 예산 1500억원을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목포~보성 간 재착공은 전남

뿐만 아니라 남해안권역 동반성장의 과제였다"며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12월 착공된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은 목포 일정에서 보성을 거쳐 순천, 광양, 진주, 마산, 부산을 잇는 총연장 294.6km다. 사업비는 8조5000억원이었다.

이 철도는 국토균형발전과 남해안 권역

연결을 위한 남해안 선벨트(Sun Belt)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이기도 했다.

하지만, 2조2175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목표 일정~보성(82.5km) 구간은 시급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지난 2007년 4월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됐으며, 1조7550억원이 투입될 보성~순천간 45km 구간은 철도 건설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순천~광양(10.9km), 진주~마산(53.3km) 구간은 지난해 완공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공사중단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내년 재착공

### 韓·中 FTA 2단계 첫 협상 개시

### 품목별 시장개방 본격 진행

한국과 중국의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첫 협상이 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인천호텔에서 시작됐다.

오는 22일까지 단시간 진행되는 이번 협

상에는 우리 측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기획재

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관계관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

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정한 개방범위를 바탕으로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양국은 1단계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관세 철폐율)에 합의했다.

이 기준에 맞춰 교역품목을 일반품목(10년 내 개방), 민감품목(10~20년 내 개방), 초민감품목(20년 이상 개방유보)으로 나누게 된다.

/연합뉴스

## 인턴사원 모집공고

정보통신산업의 선두주자 "큰다 믿음과" 대신정보통신에서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부문	인원	전공 및 우대사항	근무지역
IT부문	20명	● 컴퓨터관련, 정보처리관련 전공 우대 ● 전산계산, 전자통신, 정보통신 관련학과 전공 우대 ● 전파, 통신, 전자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울지역 전남광주 (희망자 지역 기재)
공통 사항		● 2014년도 졸업예정인자 ● 인턴십기간 3개월(근무성적 우수자 정규직 전환) ● 월급여 110만원(종목제공) ● 4대보험 가입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

### 제출서류

가. 이력서 사전부착(일반양식)

나. 자기소개서 A4 2매 이내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1. 22(금) 접수분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eon@dsic.co.kr)

다. 문의처 : T. 02-2107-5011(홈페이지 : www.dsic.co.kr)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대신정보통신주식회사

##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